

# 사업회 소식

지난달 1일(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로 선임된 김영준 상임이사의 취임사 전문을 실어 「희망세상」 독자들과 공감하고자 한다.

## 이사직을 시작하며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사장님과 여러분 앞에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이사장님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지하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지금까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회가 출범할 때 안았던 문제는 무엇이고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쌓아온 타성과 잘못된 관행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민주화 과정에서 생성된 소중한 기억들과 당당한 자부심이 온전히 이어져 역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범한지도 8년 여, 출범 시의 그 진지함과 열정을 되살려 봅시다. 그때의 그 열정과 헌신을 되살리기 위해 나는 여러분들과 가슴을 열고 소통하겠습니다. 생각의 가운데는 오직 이것이 사업회의 발전과 당당함을 키우는데 합당한가 하는 문제의식만이 작동되기를 간청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관료적인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타파하고, 생계를 위한 직장이 아니라 일 그 자체를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룰 때나 어느 곳을 방문할 때나 동료들과 업무협의를 할 때나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회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들과는 항상 내가 먼저 도와 줄 것이 없나 물으며 다가가기를 청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모든 평가는 각자가 보여주는 위와 같은 헌신성과 치열함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주화운동 진영은 지금 치열한 고민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가운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과거의 기념’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동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당당한 사업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2009년 6월 1일 상임이사 김영준

# 사업회 소식

##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달 10일(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이달곤 행안부장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와 시민 450여 명이 참석했다. 6·10민주항쟁 20주년이던 지난 2007년에 6월 10일이 '6·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국가 차원에서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병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공동 이사장의 경과보고, 대통

령 기념사(행정안전부 장관 대독),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함 이사장은 "지금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저 빛나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자"고 말했다.

## 2009 UN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는 지난달 26일(금)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 UN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UN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고문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동안의 지원 노력과 현황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문 피해자들의 사례 증언과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보고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사례 증언에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김양기(1986년 일본관련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씨 등이 증언자로 나섰다.

이어진 활동보고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던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내상 치유활동에 대한 경과를 소개했다. 그동안 의료와 인권을 접목한 인권 의학을 강의해 온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내과 전문의)이 '세계의 고문 치유 노력-이스탄불 의정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 국제 워크숍 '아시아에서의 인종과 헤게모니의 연계' 개최



국제 워크숍 「아시아에서의 인종과 헤게모니의 연계: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가 지난달 24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레나(ARENA: 아시아지역대안교류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11명의 발표자·토론자를 비롯하여 50여명이 참가하였다.

올해 2차 워크숍은 지난해 7월에 열린 1차 워크숍 「아시아에서 '인종'과 헤게모니가 갖는 함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인종이 아시아에서의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는 범주임을 밝히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갖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했다.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질의응답을 통해 인종이 아시아에서의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 유용한 개념임을 확인하고, 아시아에서의 인종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와 실천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교화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와 결혼한 이주 여성이 급격히 증가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듯 관련 사회단체 참가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두드러졌다.

## 1970년대 민주수호운동 구술수집사업 추진



자료관은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수집사업'을 통해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한국 현대사 시기의 구술사료를 수집하고 있다. 구술사료 수집은 민주인사의 기억 재현을 통해 유실 위기에 처해 있거나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한국현대사 자료를 후대에 남기기 위함이다.

구술사업의 중장기 계획 <1970년대 구술사료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에 걸쳐 '1970년대 학생운동구술'을 수집한 바 있으며 올해는 '1970년대 노동운동'과 함께 '1970년대 민주수호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970년대 민주수호운동구술'은 '민수협', '민청협', '민주수호청년학생연맹'의 결과과정과 주요 활동에 참여한 관련 인사들의 참여와 함께 서울대 박태균 교수의 면담으로 진행된다. 관련사료 자료집『資料集』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생산한 것으로 민주수호선언서,

운영상황 일지, 회원명부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사업회 소식

## 2009년 시민교육 세계의회, 남아공 케이프타운 참가



교육사업팀은 지난 5월 27일(수)부터 6월 1일(월)까지 진행된 2009년 시민교육 세계의회(2009 World Congress on Civic Education)에 참석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시민교육 세계의회는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CCE)가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CCE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민교육관련 국제행사다. 올해 남아공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미국 CCE의 실무자 그룹, 자문위원, 시민교육 전문 강사를 비롯하여 70여 국가에서 파견한 시민교육 전문가 약 200여명, 시민교육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남아공 교사, 정부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시민교육, 과거에 대한 화해·민주적인 미래 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의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반성과 화해, 미래의 민주적인 사회건설을 위해 CCE의 협력 하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교육 사례를 들었다.

교육사업팀 참가자들은 CCE 관계자들을 만나 몇 가지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했다.

첫째, CCE의 사무총장인 퀴글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세계의회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둘째, 국제사업국장인 누치 씨를 만나 내년도 최초의 아시아 지역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8월 서울에서 진행될 <프로젝트 시티즌> 교사연수 강사로 내정된 보이 씨와 필립 씨를 만나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오는 10월에 예정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체험 발표대회에 CCE가 후원하기로 합의하고, 입상자들을 내년 미국에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 시민교육센터는 '1국 1조직 파트너십 원칙'을 재확인하며 향후 사업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회를 통한 한국의 여러 시민교육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 여름방학 교사연수 시리즈 안내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이 어려우신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교사들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운동' 하는 연수를 마련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개요

구분	핵심주제	연수명	시기,장소
기초과정	가치, 비전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	7월, 서울
	의미, 방법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풀어볼까?	8월, 부산
심화과정	역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4월, 서울
	사회참여	프로젝트 시티즌	8월, 서울
	핵심역량	미정	해빈기, 서울

### 2. 프로젝트 시티즌

- 시기 : 8월10일~14일 (4박5일)
- 장소 : 호텔아카데미하우스 (서울 수유동)
-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사 25명
- 내용 :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수업방법과 자료 공유
  - 문제발견 : 공공정책의 과제 발견 및 선택
  - 대안마련 : 학습 과제의 정보 파악 및 재구성
  - 실행계획 :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및 문서화
  - 전체공유 : 포트폴리오 발표 및 평가
- 형태 : 자율연수
- 강사 : 미국 시민교육센터의 전문 트레이너 2인 초청 (통역진행)
- 문의 : 02-3709-7622(은영준), gongmo@kdemo.or.kr

### 1.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

- 시기 : 7월 29일~30일 (1박2일)
- 장소 : 서울유스호텔 (서울 남산)
-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사 25명
-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의미 발견 및 비전 세우기
  - 마음열기 : 다양한 모습, 비슷한 마음들의 반가운 만남
  - 철학탐구 : 내 안에 숨겨두었던 가르침의 가치 재확인
  - 체계잡기 : 손에 잡히는 민주시민교육 ABC
  - 사례나눔 : 내 수업에 활용할 레시피 모음
  - 비전찾기 : 실천을 이끄는 나만의 비전 찾기
  - 힘모으기 : 현장에서 꺼내 쓸 든든한 에너지 충전
- 형태 : 직무연수
- 문의 : 02-3709-7624(최지윤), 3design@kdemo.or.kr

### 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풀어볼까?

- 시기 : 8월 17일~19일 (3일 출퇴근)
- 장소 : 민주공원 (부산 영주동)
- 대상 : 부산, 경남 지역 초중등 교사 40명
-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의미 발견 및 다양한 수업 노하우 공유
  - 마음열기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생각해
  - 철학탐구 : 민주시민교육이란
  - 외국사례 : 외국에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수업사례 : 내 수업에 활용할 레시피 모음
  - 수업방법 :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 힘모으기 : 현장에서 꺼내 쓸 든든한 에너지 충전
- 형태 : 직무연수
- 문의 : 051-790-7411(박선영), hana0619@demopark.or.kr



## 경북 포항, 영덕, 안동지역 님들의 숨결과 흔적을 찾아서

글 · 양금식 yangks1@kdemo.or.kr

포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자료집에 실려 있는 정영상의 시 <밤새 잠이 오질 않았다>를 읽었다.

.....

교장 선생님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사회를 가르쳤다는 분이  
 영어발음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도  
 너는 영어를 잘 하느냐  
 영어로 묻는 말에  
 영어로 답변을 못했다고  
 아이들 따귀를 때리다니  
 .....

시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가 발표된 것은 1984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그가 울분까지 함께 담아 표현했던 당시의 현실은, 얼마 전 전국적인 광풍이 되어 일세를 풍미했던 ‘오린지’ 열풍을 돌이켜보면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음을, 아니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가 생전에 걸었던 길들을 찾아 영일만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38세라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으나 그의 숨결은 곳곳에 남겨져 있어 그의 시집 말고도, 고향에 남겨진 묘비, 모교인 공주대 교정의 시비,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안동과 대구경북지역의 동료교사들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경북 포항 대송면 남성리 마을 뒷자락에 있는 그의 묘는 묘비에 새겨진 ‘민주교사’라는 것만을 제외하면 여느 일반인의 것과 다른모양새이지만, 그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발길은 적지 않은 것 같아 동네사람들로부터 괜한 눈총을 받기도 하는 모양이다. 무덤으로 기어 올라오는 칙냉쿨을 잘라내는 손길에 땀방울이 푹푹 떨어질 정도로 무더웠는지라, 낮을 잡은 모양새가 신통치 않았던지 동행했던 민가협 어머니님 한 분이 호통을 친다.

“이보게! 처삼촌 묘 별초하듯이 하지 말고, 제대로 뿌리까지 잘라내게나!” 가뭄 탓에 많이 심하게 우거진 수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주변을 정리하고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술잔을 올렸다.

다음 목적지는 권중대 전 가톨릭농민회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영덕 괴시리, 일명 관어대 마을이다. 권중대 님은 바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또 생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맞았다. 그리고 바로 그가 젊었을 때 새벽마다 올라가 고함을 질렀다는 상대산 중턱의 권 씨 문중 묘역에 묻혔다. 지난여름 이곳에 찾아와 동네 앞에 있는 밭에서 마늘을 뽑던 할머니 한 분에게 묘의 위치를 물었더니 뒷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나서는, “영주댁은 오지겠네”라며 부러워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거쳐 뒷산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시샘일 수도 있으리라.

연로하신 어머님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가파른, 그러나 길지는 않은



# 사업회 소식

산길을 올라 너른 영해의 들녘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지난 2004년, 그가 생을 마감한 바로 그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3개 단체가 세운 추모비와 함께 그의 묘가 있다. 높이 1.8m, 폭 0.9m 가량의 추모비에는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이끄신 농민운동가 권중대 선생 추모비' 라는 글이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의 글씨로 새겨져있다.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면서 부족한 솜씨들이지만 열심히 벌초를 한 후 술잔과 묵념을 올리고 김준기 선생이 지은 농민가를 모두 함께 불렀다. 동행했던 김준기 선생은 자신이 그를 농민운동에 뛰어들게 만든 장본인 중의 하나라며 상념에 잠겼다. 본인의 고향인 포항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전선이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그 이북의 경북지역은 좌우의 대립으로 인한 희생이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중대 님의 고향인 이 마을도 역시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낙향하여 마지막으로 몰두했던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괴시리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관련된 조사작업이었다. 늘 머문 자리를 깨끗이 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시고자 노력하던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1년 5월 1일, '공안통치 분쇄, 노태우정권 타도' 를 외치며 꽃다운 스무 살 나이에 분신한 김영균 열사의 흔적은 안동대학교 교정과 뒷산에 남아 있다. 1991년 5월 15일, 경북대 부속병원에서 옮겨져 화장된 그의 유골은 가족들 손으로 이름 모를 어느 곳에 뿌려졌다. 그러나 그를 가슴에 묻고자 하는 많은 학우들은 영혼장례식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경찰 봉쇄로 인해 예정되었던 장지인 천주교묘지로 나가지 못하고 학교 뒷산 중턱에서 치러졌다.

민주화를 외치며 스러져간 그는 가족과 학우들 사이의 불화로 상당기간 동안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가협과 민가협 부모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고 학교에서도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는 가족으로부터 끝까지 김영균의 흔적을 감싸 안고 보존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아침부터 학교 후배인 민속학과

학생들이 나와 묘역을 정리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묘역과 추모비 앞에서 간소한 추모행사를 후배 학생들과 진행하였다. 학생회관 앞에 있는 추모비 앞에 서면, 온 몸에 불이 붙은 채 구호를 외치며 달려 나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제 안동에도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행은 안기동 천주교묘지로 향했다. 빗줄기는 조금 더 굵어져 있었다.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해직된 교사의 몸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이 그리워 밤마다 일기장에 이름을 새기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을 배주영 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묘지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다.

1990년, 그이의 장례는 온 나라에서 달려온 교사들의 애도 속에 첫 번째 전교조장으로 거행되었다. 그날도 굵은 눈비가 흠날렸다고 한다. 묘 앞에는 그와 함께 활동을 했던 안동전교조 중등지회 교사 다섯 분이 미리 나와 비를 맞으며 일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송구함과 죄송스러움,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함께 교차하면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문득 얼마 전 일제고사 문제로 해직된 교사들이 비와 눈물이 섞여 맺힌 눈앞에 순간적으로 흘러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산천을 주유하며 이 땅의 소중함을 배우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어 온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전국에 흩어져 있는 먼저가신 님들의 숨결과 흔적들을 찾아 견고 또 느끼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 탐방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이대환, 김종철, 오영석, 안상학, 차영민, 장호철, 최형식, 김창완, 김혁배, 이천수, 윤한근, 정재돈, 강성중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글 양금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





2009년 민주시민교육 주민아카데미사업 <제1차 풀뿌리운동 활동가 아카데미> 참가기

## 풀뿌리운동 - 통하고 찾고 되새기다

글 · 조이현임

“우와~ 4박 5일이나 교육을 해? 무지하게 길구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풀뿌리 활동가 아카데미 소식을 접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었다.

4박 5일이나 시간을 빼서 교육에 참가한다는 것이, 상근하는 단체 활동가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앞뒤 쥘 겨를도 없이 선착순이 마감될까 염려하며 무의식에 이끌리듯이 냅کم 보내버린 신청서 그렇게 나는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드디어 다가온 교육 첫날, 피약벌을 걸어 도착한 연수원. 한명 씩 도착할 때마다 간혹 아는 얼굴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다. 간단한 자기소개로 4박 5일 동안 함께 할 얼굴들을 익히고 수줍은 인사도 나눠본다.

4박 5일이나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겠지, 검사점사 좀 쉬어야지 생각했던 나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아니, 시간도 안 주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많은 거야! 이력서도 만들어야 하고, 조별 모임도 해야 하고, 나눔의 벽, 키워드 이것저것 채워야할 것들도 많고, 좋아하는 노래 악보와 책을 가져와라, 자기 사진을 갖고 와라, 오기 전부터 된 요구가 그리 많던지…… 하지만 이왕 엮인 김에 뭐가 얻어가려면 나도 좀 부지런을 떨어봐야겠다 싶다.

이번 교육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는 것으로 교육은 시작되었다. 나에게 이번 교육은 고속도로 휴게소였으면, 이라고 썼다.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잠깐 멈춰 세우고, 그동안 온 길이 잘 온 건지 이제 얼마큼 어떻게 더 가면 될지 훑아보기도 하고, 바닥

이 난 기름통에 연료도 채워 넣고, 차 한잔 하며 잠깐 쉬어가기도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시공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교육 내용들은 하나하나 주옥같고, 일관성 있게 한 줄에 드르륵 켈 수 있게 우리 앞에 차려졌다. 모든 교육은 우리가 해왔던 활동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상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좀 더 새로운 상상과 가능성을 열어낼 것을 요구했다. 무엇 하나 버릴 말들이 없었고, 특히 함께 한 이들과 4박 5일 동안 만들어 냈던 우리의 이야기는 내 마음과 고민에 윤기를 더해주었다. 차례로 이어진 알찬 교육들을 제대로 꺾어 보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몫, 내 자신의 몫이다.

강사들도, 참가자들도 표현한 말들은 다 달랐지만, 풀뿌리운동에 대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다. 바로 ‘통한다’는 것.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하게 하는 것도, 이것이 잘될지 저것이 잘될지 우리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재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얘기할 공간을 열어내는 것도, 모두 통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오갔다. 통한다는 것은, 곧 관계함이다. 사람이 보여야 마을이 보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이 곧 마을을 만들어내는 것이리라.



## 사업회 소식



항상 고민하던 비전과 정체성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교육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얘기하고 눈빛과 마음을 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할까. 통하기 위해, 그래서 더 많은 가능성으로 향한 길을 닦기 위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 자신에게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미 풀뿌리운동에 미친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렇게 미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모든 창조성은 집중하는데서 나온다고 했던가, 자나 깨나

풀뿌리에 집중하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풀뿌리를 대입해서 바라보는 집중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나도 풀뿌리에 미쳐 보리라, 스스로에게도 다짐해보았다. 또한 그렇게 풀뿌리에 미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풀뿌리운동이며, 그러므로 '마을 만들기'가 얼마큼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곧 '마을 만들기'에 미치는 사람이 얼마큼 늘어났는가하는 점이거나, 새삼 느꼈다.

비오는 날, 수료식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 40분 동안 주어진 미션은 내가 버리고 갈 것과 내 자신에게 주는 애정 어린 편지였다. 그 시간 동안 발걸음을 옮겨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내가 만난 것은, 개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들과 굵은 빗방울 때문에 온 잎들이 흔들려 오히려 반짝이는 것 같이 보이던 그들.

“아,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저것이구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서 겁먹고 걱정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것은 저들처럼 무서워말고 비를 맞으러 가는 것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꼭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좀 안되면 어때. 그동안 너를 믿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해. 믿고, 아껴줄게. 주눅 들지 말고 어깨를 더 펴고 걸어보자. 한발 한발 더 성큼, 그리 빠르지 않아도 좋아. 네가 더 많이 미소 지으면 좋겠어”



그 때 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지만 놓쳐왔던 것을 발견했다. 그 모든 답들은 내 안에 내재해 있고, 결국 내가 풀 수 있는 것이라는 진리. 내 맘 속에 흔들리는 것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흔드는 것이라던 말이 와 닿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5일 동안 이어져온 교육 내용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보다 시도와 도전, 행동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고맙고 또 고맙던 그 시간이 어느새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되새김질은 쉬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 황금 같던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이토록 아픈거리고 소중한 이상, 5일 동안 나눴던 얘기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내 일상 곳곳에서 풀뿌리운동에 대한 화두가 되어 툭툭 튀어나오는 이상, 이 되새김질은 계속 이어지리라.

4박 5일 동안의 여정 마지막, 누군가 불러주었던 노래의 여운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리라 믿으며, 또 풀뿌리에서의 만남들이 항상 다신 없을 느낌으로 남길 기대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되겠죠. 허나 이런 느낌 다신 없을 테죠.  
그래도 잊진 말아요. 그대의 소중한 재능이 숨겨진 보석과 같은 거죠.  
언젠간 환하게 빛날 테죠. 꿈만큼 이를 거예요.  
그대를 지켜 주는 건 그대 안에 있어요”

권진원 <진심> 중에서

글 조이현임 |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활동가